한국불교미술의 통시대적 전승을 모색한다



조수연 作, 〈수월관음보살〉



양선희 作, 〈지극정성의 요람〉



고승희 作, 〈보상화〉

제27회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원전

1.10~16 인사아트플라자갤러리

한국불교미술협회 1980년 협회 창립 후 불교미술 전승과 현대화 노력

김창균, 강순형 등 작가 50여 명 참여 불교회화, 불교조각 등 50여 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불교미술을 전승하고 미래를 모색해온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 김창균 이하 불미협)가 1월 10일(수)부터 16(화)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플라자갤러리에서 제27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불교미술의 전통을 잇고 올바른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불교미술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창균(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 회장을 비롯하여 강순형(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박경귀(불화작가, 선아트스페이스 대표) 등 50여 명의 작가가 전통불교미술과 현대불교미술을 아우르는 불교회화, 불교조각 등 대중과 교감할 수 있는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지도론(大智度論)〉 권4의 '一切處求不可得 如幻 如響 如水中月 見便失'에서 영감을 받아 수중에 비친 달을 관음보살이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조수연의 '수월관음보살'을 비롯해 판화로 연꽃 핀 연못을 그린 김창균의 '연지',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후불탱 예상희의 '석가후불도', 전통과 현대적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양선희의 '지극정성의 요람',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단청 고승희의 '보상화', 초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경귀의 '무우수꽃 붓다', 그 밖에 김석곤의 '佛', 최학의 '위태천도' 등 새로운 발상과 형식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불교미술을 만날 수 있다.

박경귀 부회장은 "불미협의 회원전은 당대의 전승을 넘어서기 위해 통시대적인 안목으로 한국불교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전시 역시 그것의 연장선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전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불교미술협회는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동문이 주축이 되어 1980년에 창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미술작가 단체다.

화단과 학계에 영향을 주는 많은 회원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재 현장에서는 보수기술자와 단청기술자들이 다수 배출되어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전통불교미술을 전승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2-736-6347

〈삼국유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삼국시대 기록의 보고, 삼국유사' 展

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서 2.25까지

파른본, 불교 공양구등 100여 점



'삼국시대 기록의 보고, 삼국유사' 전 포스터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삼국시대와 가락국 등 한반도 역사 기록의 보고인 〈삼국유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권상렬)은 2월 25일까지 기획전시실Ⅱ에서 테마전 '삼국시대 기록의 보고, 삼국유사'를 개최한다. 경상북도 · 군위군, 연세대학교 박물관, 은해사, 인각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전시에는 삼국유사 가운데 가장 빠른 초기 판본인 연세대학교 소장 파른본(보물 제1866호)을 비롯하여 인각사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공양구, 2017년 완성된 삼국유사 초기 복각본 등 관련 유물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파른본은 왕의 일대기를 담은 '왕력' 편과 신화와 전설로 가득한 '기이' 편의 내용이 결장 없이 완전하다는 점에서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료다.

〈삼국사기〉와 더불어 삼국시대를 기록한 보전(寶典)으로 평가되는 〈삼국유사〉는 집필의 동기, 과정, 형식과 내용 등에서 다른 역사서들과는 다른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고려인의 자긍심을 되찾겠다는 집필 동기와 역사서, 사찰 사적기, 금석문, 당시 고려인의 증언 등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수집 과정, 저자인 일연 스님의 자유로운 문체와 서술 방식, 삼국시대는 물론 단군신화 등 고기(古記)의 기록들이 온전히 수록되었다는 내용적인 측면까지 우리에게는 귀중한 유물이 아닐 수 없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우리의 지난 모습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삼국유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김으로써 이번 전시가 새해 새 출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 구성은 인각사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일연 스님의 생애, 〈삼국유사〉의 체재, 삼국유사 복각사업, 삼국유사 조선 초기본, 문화콘텐츠의 보고 삼국유사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재완 기자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 1월 프로그램

한국 서화의 아름다움과 조선 후기 불교 조각 감상

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와의 대화' 1월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문을 연 서화실에 대한 전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서화실 개편은 '서화입문실'을 마련하여 젊은 세대의 공감과 기성세대의 향수를 만족시키고, '명품실'과 '주제 전시실'에서 국보와 화제작 등을 전시하여 한국 서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이어서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시 설명회 '교과서는 살아있다'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교육 분야 큐레이터와 함께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문화재를 '자연', '그릇', '지배자' 등 하나의 주제로 엮어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새롭게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1.26~3.18)의 전시 설명회도 마련되며, 이 밖의 상설전시관에서는 '조선 후기 불교 조각(불교조각실 1.10)', '고대 철의 종류와 특징(백제실 1.17)', '선사시대 동굴(신석기실 1.24)'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강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